

제목 : 나이 들어 색다른 공부하기

출처 : 이곳 저곳에서...

목적 : 웃으며 삼시다.

3 부 중 제 1 부: [공부 시작하기]

-일 더하기 일은?

둘?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 노동"

-유럽에서 미국까지 가는 버스는?

콜롬 버스

-Winner

손님 : 웨이터, 이 가재는 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웨이터 : 손님, 그 녀석이 싸운 것 같은데요.

손님 : 그러면 이긴 녀석으로 가져와요.

-북한은 고민중?

북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싸워서 패한 나라는 모두 잘 산다.
그러니 미국과 한 판 붙어 패하자.

그러면 북한도 잘 살 수 있다.' 하고
한 판 붙기로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이 반응이 없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합니다.
우리도 미국을 이겨 월남 끝 되는 거 아녀?

-고추

사무실근처 식당 천장이 고추를 화분에 심어 놓으셨는데
아주 큼직하게 잘 열렸습니다,

'왜 큼직하게 잘 클까?'
발명가로써 연구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사무실 근처에 예쁜 여자들이
짧은 치마 입고 고추 앞을 많이 다니거든요.

-만졌지?

3 살 꼬마가 고추를 만지는 것을 본 아빠 왈;
"자꾸 만지면 없어져요"

몇 일 뒤 목욕탕에서 엄마를 보더니...,
"엄마, 자꾸 만졌지?"

-별난 취미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와 여자,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남자: 혹시 담배 피우나요?

여자: (호들갑)어머, 저 그런 거 못 피워요 !

남자: 그럼, 술은?

여자: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데요. !

남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는?

여자: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는 걸요 !

남자: 정말 순진하시군요!

전 솔직히 반갑긴 하지만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

그러자 여자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여자: 호호호,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

-저승간 흥부와 놀부

저승 간 흥부 내외와 놀부 내외가 염라대왕 앞에 섰다.

염라대왕: 흥부 놀부는 듣거라. 지금 너희들 앞에 똥통과 꿀통이 있느니라.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가겠는고?

(놀부 쩍싸게 먼저 말한다)

놀 부: 저는 꿀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염라대왕: 그런가? 허는 수 없군,

(놀부는 꿀통에, 그리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오너라.

(두 사람은 염라대왕이 하라는대로 했다)

염라대왕: 너희 두 형제는 서로 마주 서거라.

그리고 서로 상대의 몸을 핥아라.

놀부는 죽을 상이 되고 말았다.

한참후....,

염라대왕: 흥부아내와 놀부아내는 각자 어느 통에 들어 갔다 나오겠는가?

(놀부 아내는 얼른 놀부를 쳐다본다)

놀부는 똥통에 들어가라는 눈짓을 한다.

놀부아내: 대왕님, 저는 똥통에 들어가고 싶어요.

염라대왕: 오. 그러냐? 허는 수 없지.

놀부아내는 똥통에 그리고 흥부아내는 꿀통에 들어 갔다 나오니라.

(두 여인은 염라대왕이 하라는데로 했다)

염라대왕: 지금 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자 자기 아내와 마주 서거라.

그리고 각자 자기 아내의 몸을 깨끗이 훑아라!!!

-당황과 황당, 용기와 오기

여자가 버스 뒤에서 쉬를 하다가 버스가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면 "당황"한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해 버리면?

그것은 "황당"한 것이다.

남자가 버스 뒤에서 오줌을 누다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버릴 때,

그대로 태연하게 누면, 우리는 그를 "용기"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버스를 쫓아 가면서 오줌을 누는 사람은?

"오기"가 발동했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치기"라고도 한다.)

-지하철에서 생긴 일

봄비는 지하철안, 오늘따라 전철은 열렸다 다쳤다 할 뿐,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그 와중에 내 옆에 서있던 아저씨가 문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머리가 끼고 말았다.

가까스로 머리를 빼낸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갑자기 마구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궁금한 나머지 아저씨에게 여쭙보았다.
"아저씨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가까스로 말했다...
"나 말고 두 명 더 있어!"

新년센스 퀴즈

-돈을 받은 만큼만 몸을 허락하는 것은?
..... 공중전화

-발바닥 한 가운데가 움푹 패인 이유는?
..... 지구가 둥글기 때문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쁠 때는?
..... 머리 감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공중 화장실은?
..... 전봇대

-씨암탉의 천적은?
..... 사위

-아버지가 화났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딸을 서울의 대학교로 유학 시키고

논발 다 팔아서 뒷바라지를 했다.

여름방학이 되자 성숙된 모습의 여대생이 되어
딸이 고향집에 찾아왔다.

딸은 먼저 아버지에게 큰절을 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엉엉. 아버지예, 지가 홀몸이 아니구만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분이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서울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못 고치다니. 고연 것 같으니라고...&%\$!"

-맥주병 해병

해병이 있었는데 그는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었다.

하루는 친구들이 놀렸다.
"야, 넌 해병인데도 수영을 못하냐?
너 해병 맞니?"

그러자 그 해병이 한마디 했다.
"야, 그럼 공군은 다 날아다니냐?"

-점 뺏다

4.5 와 5 가 있었는데...,
5 는 4.5 에게 이유없이 못살게 하는데,
4.5 는 아무말 못하고 죽어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5가 4.5에게 물 떠오라고 하자,
평소 같으면 고분고분 해야할 4.5가 5에게 대들었다.

당황한 주위 숫자들이 왜 그런가하고 4.5에게 묻자,
4.5 하는 말...

"나 점 뺏다"

-그 말이 맞네

세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들에 붙잡혔는데,
무조건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람: 저는 절대 안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으로!

두번째 사람: 저도 절대 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세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형사님. 혼자서 하는 도박도 있습니까?"

-말하는 전자 저울

에어로빅센터에 말하는 최신 전자저울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 40 kg인 사람이 올라가면“당신의 몸무게는
40 kg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울이었다.

어느날 90 kg이나 되는 한 아주머니가 올라갔을 때
최신저울이 말했다.

“일인용입니다. 한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호떡 이야기

아기호떡과 엄마호떡이 있었다.

아기호떡이 불에 들어갔다.

잠시후, 아기호떡이 소리쳤다.

아기호떡: "엄마. 뜨거워!"

엄마호떡: "호떡의 인생이니 참아야 한단다."

잠시후...,

아기호떡: "엄마 나 못참겠어!"

엄마호떡: "참어!"

잠시후...,

아기호떡: "엄마. 나 정말 못 참겠어!"

엄마가 하는말,

"그럼..., 뒤집어!"

-자전거 못타!

자전거 를 영어로 무어라고 하지요?

"싸이클"

그럼 자전거 못타는 것은?

"모타싸이클"

-왕의 외출

때는 조선중기.

임금께서 평민차림을 하고 신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한 주막에 들어 갔다.

한 처자가 있길래 불렀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계속 부르니까, "귀찮게 왜 이러세요"하며 신경질을 내는게 아닌가.

그때 주막 주인이 냅다 달려와 그 처자를 쥐어박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손님은 왕이랬잖아!"

그러자 신하가 조용히 말했다..

.

.

"마마, 들켰사옵니다 "

-목장에서 생긴일

목장에서 일하는 공바우가 마차를 몰다가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마차가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마침 근처에 사는 목장 주인이 공바우를 알아보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니, 공바우 아닌가? 마차는 내가 고쳐줄테니 들어와서 우리 저녁이나 함께 하세!"

"고맙지만 ..아버지가 원치 않으실 거예요!"

"허허.. 글썄 괜찮으니까 저녁 먼저 들게"

곰바우는 마지못해 제의를 받아들이며 말했다.

"사실, 배가 고팠는데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마...,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실 거예요"

곰바우는 푸짐한 저녁을 먹고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에이, 그런 소리 말게.

그런데 도대체 자네 부친은 지금 어디 계신가?"

.

"마차 밑에요!"

- 주정뱅이 낚시광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얼음 낚시를 가고 싶었다.

그는 재빨리 낚시도구를 챙기고 잘 얼어있는 얼음을 찾아 다녔다.

좋은 곳을 찾은 그가 얼음판의 한 가운데까지 가서 톱을 꺼냈다.

한참 톱질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얼하고 있는 것이냐, 그 얼음 밑에서는 물고기가 없다"

주정뱅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톱질을 시작하는데 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했지, 거긴 물고기가 없다니까!"

주정뱅이가 위아래를 다 돌아보았지만 개미한마리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톱을 들었다.

얼음에 톱을 갖다 대기도 전에
다시 화난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세번째 경고다, ! 물고기가 없다고!!"

주정뱅이는 겁이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혹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신가요" .

.

"아니다. 나는 이 아이스하키장 관리인이다!"

-시집가는 딸

딸이 결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잠시 잠자코 있더니 물으셨다.

"그 사람 어디 돈은 좀 있나"

그러자 딸이 말했다.

"오, 신기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물었다.

"그 사람도 아버지에 관해 그 점을 궁금해 했거든요."

-바보 대행진

한 기자가 차를 타고 레바논 국경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때 국경을 지키고 있던 군인 한명이 다가왔다.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

기자는 곤란한 듯 말했다.

"저, 제 차 핸드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가 내리면 차가 굴러 떨어질 텐데요?"

"뭐?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군인은 조수석으로 와서 기자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자신이 밟으며 말했다.

"자, 이제 나가서 트렁크를 열어!"

기자가 트렁크를 열자 군인이 소리쳤다.

"이봐, 트렁크 안에 밀수품 없어?"

".....(있어도 없지)....."

-장수 비결 .

"나이를 많이 잡수십시오."

-건강 비법

"건강이 좋아 보이는데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가지요?"

"저는 철분을 많이 먹습니다."

"???????".

.

"저는 철이 없어서(철이 덜 들어서)요."

-만질 물건이 없는 사람

"Where you in the service?" the job applicant was asked.

"Yes, I was in Vietnam and I have a partial disability."

"May I ask what happened?"

"Well, I had a grenade go off between my legs and I lost both testicles."

"You're hired. You can start Monday at 10 am."

"When does everyone else start? I don't want any preferential treatment because of my disability."

"Everyone else starts at 7 but I might as well be honest with you. Nothing gets done between 7 and 10.

We just sit around scratching our balls trying to decide what to do first."

"군대 갔다 왔어요?"하고 취직하러 온 사람에게 물었다.

"네 베트남에 가서 다치는 바람에 성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쳤는데요?"

"가랑이에서 수류탄이 터지면서 불알 두 쪽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채용하기로 합니다. 월요일 10 시부터 근무하세요."

"다들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대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들 7 시에 나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7 시에서 10 시 사이에는 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불알을 긁적이면서 똥부터 해야 하나 궁리만 합니다."

△ service : 군무, 병역

△ partial disability : 부분 장애

△ grenade : 수류탄

△ testicle : 불알, 고환

△ preferential treatment : 우대

△ ball : [비속]불알

△ might as well : ~하는 게 좋겠다

-김밥과 만두의 대결

분식점 운동회가 열려 만두와 김밥이 달리기 시합을 했다.

만두는 속에 든 것이 별로 없어 거의 날 듯이 달렸다.

만두에게 뒤쳐진 김밥도 죽을 힘을 다하여 뛰었다.

만두와 점점 격차가 벌어지자 김밥은 단무지와 햄, 그리고
오이 등을 내던지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결국 만두가 간발의 차이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말았다.
이후, 누군가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본부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본부석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만두 선수 실격, 간장을 안 찍고 달렸습니다."

-유일한 결점

한 노인이 친구에게 말했다.

" 우리 사위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지. "

" 그게 뭐지? "

" 노름을 할 줄 모른다는 걸세. "

" 그야, 결점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

" 천만에! 할 줄도 모르면서 자꾸만 하는게 문제일세. "

-죽을 준비 해라!

어느날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강도는 사오정에게 칼을 들이대며 말했다.

"죽을 준비 해라!"

이에 사오정이 하는 말

"우리 집엔 밥 밖에 없는데요"

-만득인데요

만득이와 친구 일행은 베스킨라빈스 31 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만득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였고,

만득이는 아이스크림 통 앞에 가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주세요" 하고 말했더랍니다.

그런데 알바생이...,

"손님 그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름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만득이 왈

"만득인데요? "

-최불암 시리즈 완결판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에게 지금까지

나왔던 최불암 시리즈를 전부 이야기 해줬다.

최불암 시리즈를 처음 듣는 아빠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난 후,
잠시 표정이 굳어지더니 신문을 펴면서 한마디 했다.

"최불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년센스 퀴즈

키작은 꼬마 한명이랑,

잘생긴 어른 한명,

못생긴 어른 한명,

그리고, 작은 강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4 명이죠?

그러나, 우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헛!

하지만, 아무도 비를 맞지 않았습시다.

왜 아무도 비를 맞지 않았을 까요?.

.
.

.

정답: 비가 안 왔다.